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LG)

: 향후 직업기술교육훈련(TVET)의 전략과 과제

이남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글로벌협력센터장)

제 I 장

개발협력 이슈

제 II 장

제 III 장

제 IV 장

목차

I. 시작하면서

II. 양성 평등을 위한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전략 분석

1. TVET 협약
2.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EFA: Education for All, 1990)
3. 새천년 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2000)
4. Post-2015 글로벌 개발
5. 세계교육 포럼(World Education Forum)
6. OECD의 SDGs 이행 전략

III. 한국의 ODA 사업 분석

1. 2016년 ODA 예산 규모
2. 2016년 ODA 주요 추진 과제와 전략

IV. TVET의 여성 정책과 ODA

1. 국제기구 등에서의 여성정책
2. TVET 분야 ODA
3. 여성 TVET 분야 ODA

V. TVET과 BLG 구상

1. BLG 개요
2. 중요성

VI. TVET 개발 협력의 비전 및 추진 전략

1. 비전
2. 추진 전략 목표와 과제

VII. 마무리

참고문헌

초록(Abstract)

인적자본의 한 요소로서 TVET는 국가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은 선진국과 비교해서 TVET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은 2015년 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에 공표된 정부 개발협력 구상인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LG)’에 대해 향후 전략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제 2장에서는 국제기구 등에서의 양성 평등을 위한 TVET 전략, 제 3장에서는 한국의 ODA 사업을 분석을 하였다. 한국의 ODA 사업 분석에서는 2016년 ODA 예산 규모 및 주요 추진 과제와 전략을 분석하였다. 제 4장에서는 TVET의 여성정책과 ODA 분석을 위해서 국제기구 등에서의 여성정책, TVET 분야에서의 ODA 및 여성 분야 TVET에서의 ODA 실태를 살펴보았다. 제 5장에서는 TVET와 BLG 구상 분석에서는 BLG 개요와 중요성을 분석하였다. 제 6장에서는 TVET 개발 협력의 비전 및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장은 본 논문의 결론이다.

주제어: 소녀(여성),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개발협력, BLG

I. 서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빈곤은 심화되고 있으며, 빈곤 인구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는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 곳곳의 빈곤 인구 가운데 대다수가 여성이며 남녀 불평등은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교육, 소득, 평균수명 등의 성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유엔의 여성개발지수 순위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은 하위권에 집중되어 있다.

여성은 우리 사회의 기반이자, 모든 가정, 지역과 국가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주춧돌 중 하나이다.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성불평등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많은 여성들이 교육에 대한 접근, 직업선택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가지지 못하며 정치, 경제, 사회적 활동에서도 큰 장벽에 부딪치고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에서 초등 및 중등교육의 성별 격차는 좁혀지고 있지만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다수 국가들과 남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소외계층에서 여아의 초중등교육 및 직업기술교육훈련(Technical & Vocational Education Training, TVET) 등록률이 남아에 비해 현저히 낮은 문

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성들은 남성에게 비해, 무급여 가족 근로자 혹은 비정규직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여성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남성들보다 소득이 적고 남녀 간 임금격차가 매우 큰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놀랄만한 경제적·사회적 성장으로 원조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되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양측에서 우리에게 대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여성개발 분야는 지속적으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국제개발 협력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초청 연수사업 외에는 다양한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여성 국제개발 협력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초청 연수사업에 이어서 지속적인 개발도상국 여성들의 역량개발을 위한 사업의 요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강국으로서 타 개발도상국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다. ICT 기술은 새로운 형태의 학습을 촉진하고 학생들에 대한 기대를 변화시키며, 생애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더불어 인적역량(skills)을 개발하고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제공을 활성화시킨다.

TVET에서 회계와 ICT는 이러한 여성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남녀 모두가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창출할 중요한 도구이다. ICT는 우리 삶의 각종 분야에서 다양한 기회를 창출하는 촉매제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고용시장을 형성하여 여성의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 기술과 텔레워크의 확산으로 직장가 가정의 근거리화가 실현되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더욱 촉진되고 있다.

2015년 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에 공표된 정부 개발협력 4대 이니셔티브 중 핵심이니셔티브인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LG)’에서 소녀계층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에 긴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최근 해외원조의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짧은 역사를 바탕으로 한국의 비교우위 요소를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여성들의 TVET 지원을 함으로써 개발도상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한다.

본 논문은 소녀들을 위한 TVET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본 이니셔티브에 대한 향후 전략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한 KOICA의 발전적인 전략을 제시하여 SDGs에 대응 선두주자로서의 기관 이미지 유지 및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II. 양성 평등을 위한 TVET 정책 분석

전 세계적으로 국제기구를 포함한 다양한 단체나 조직에서는 양성평등 정책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여성들에 대한 TVET에 대한 역량강화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TVET 정책 동향 중 직업기술교육 협약, 만인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Post-2015 글로벌 개발 및 세계 교육 포럼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1. 직업기술교육 협약 정책

1989년 11월 10일 파리 제 25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한 ‘직업기술교육 협약’은 여성과 소녀의 직업기술교육을 증진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도록 고려하고 전직, 직업자격 개선, 지식, 기술, 이해의 갭신에 필수적인 교육과 훈련을 위해 기초한 것이다. 본 협약의 적용상, 직업기술교육은 일반 지식뿐만 아니라 기술 및 관련 과학의 연구, 경제, 사회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직업과 관련된 실제적 기술, 전문지식, 태도 및 이해의 습득을 포함한 모든 형태와 수준의 교육과정을 지칭한다.

체약국은 직업기술교육에 적합한 교육수준을 획득한 그 어떠한 개인도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국가적, 사회적 배경, 정치적 또는 또 다른 의견, 경제적 지위, 출생에 의해, 또는 그 밖의 다른 근거에 의해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체약국은 직업기술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 권과 학습기회의 평등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EFA)은 1990년 UNESCO가 태국 줌티엔(Jomtien)에서 개최한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 세계회의(World Conference on Education for All)’에서 세계 각국 대표들이 합의한 주요 목표들로 2000년 세네갈 다카르에서 MDGs와 연계하여 6대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 주요한 목표는 ①취학 전 아동의 복지 및 교육의 개선, ②초등교육의 보편화, ③성인 및 어린이들을 위한 기술훈련 및 교육의 증진, ④성인 비문해율 50% 개선, ⑤2005년까지 초중등교육에 대한 남녀격차 해소 및 2015년까지 성별 불균형 해소, ⑥모든 면에서의 교육의 질 향상 등이다. 이와 함께 EFA는 UNESCO가 전개해온 1950년대 성인 문해 교육 운동, 1960년대 초등교육 의무화 사업, 1970년대 평생교육 사업 등 다양한 활동들이 집약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3.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2000년 9월 UN 밀레니엄 서밋(UN Millenium Summit)에서 2015년까지 빈곤 퇴치를 목표로 새천년 선언문을 채택하고 8개의 세부 목표가 포함된 새천년 개발 목표를 발표했다. MDGs는 국제사회의 공동의 노력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8개의 목표, 18개의 세부목표, 48개의 측정 지표를 두고 있다(〈표 1〉 참조). MDGs 중 양성 평등, TVET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TVET와 여성 능력 개발

목표	세부 목표
① 1: 절대 빈곤과 기아 근절	• 취업률(세부목표 1b): 모든 사람을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달성
③ 3: 양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 초중등학교의 여학생 비율(세부목표 3.1): 초중등학교 내 동등한 남녀비율 확보 • 비농업 분야 여성노동자 비율(세부목표 3.2): 여성 고용창출 및 소득개선

출처: 외교부 (2015)

국제사회는 MDGs를 통해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빈곤감소를 이루어 냈고, 개발도상국의 초등교육과 보건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였다(김지현 외, 2015).

4. Post-2015 글로벌 개발

국제사회는 그간의 글로벌 공조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개발협력 사업의 새로운 방향제시를 위해, 2012년부터 MDGs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글로벌 목표 수립을 위해 UN을 중심으로 Post-2015 글로벌 개발 프레임워크에 준비를 했다. 〈표 2〉는 EFA(2000)과 Post-EFA(2015) 주요 내용 중 목표, 의제 및 대상을 비교 설명한 것이다.

〈표 2〉 2000년과 2015년 교육의제 형성 비교

구분	EFA(2000)	Post-EFA(2015)
포괄적 목표	• 거시목표가 제시되지 않음	• 모든 세부 교육목표를 아우르는 포괄적 목표 제시 • 학교교육을 넘어서 평생학습 차원의 접근에 대해 최초로 제시
의제	• 기초교육 중시	• 기초교육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과 평생학습으로 확장
대상	• 여성과 장애인에 준하는 소외집단 • 취약계층에 대한 모호한 접근	• 구체적 대상 설정 예) 취약계층의 구체화: 장애인, 토착민, 난민, 최빈국의 중도탈락 아동 등

출처: 김진희 외(2014)

제 I 장

개발
협력
이슈

제 II 장

제 III 장

제 IV 장

SDG에서의 교육의제는 2015년 종료되는 EFA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점검하고, 나아가 향후 2030년까지 이어질 미래 교육의제를 정립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교육 분야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SDG의 세부목표 4.1(기초교육(초·중등교육))과 4.2(영유아 보육·교육)로 초·중등교육과 중등교육을 포괄하는 기초교육과 유아교육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표 3>는 SDGs에서의 세부목표 4.3과 4.4 TVET 의제(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한 것이다.

<표 3> TVET 유엔 지속 가능 발전 목표(안)

구분			비고
4.3	직업교육·중등교육 이후의 교육 (고등교육 포함)	•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들이 부담가능한 수준의 질적인 직업기술교육,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중등교육 이후의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갖는 것을 보장함	• 지표: 청소년 직업기술교육훈련 참여율 (15- 24세)
4.4	직업을 위한 기술 (Skills)	• 2030년까지 교육 내 성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토착민·취약한 상황의 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대한 동등한 참여를 보장함	• 지표: 청소년 및 성인 ICT 기초능력

출처: UNSD (2015)

MDGs와 SDGs의 가장 큰 차이는 MDGs의 내용은 개발도상국과 빈곤에 초점이 맞춰 인간개발의 기초적 목표에 집중했다면 SDGs는 개발도상국 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소비, 생활, 환경 등 발전방식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3>은 MDGs와 SDGs를 비교 설명한 것이다. 교육훈련 및 여성 능력과 인권 배양 측면에서 MDGs는 각각 ‘초등교육의 완전보급’과 ‘성평등 촉진과 여권 신장’을, SDGs는 ‘포괄적이고 공평한 질의 교육보장 및 평생교육의 기회 촉진’과 ‘성평등 달성 및 여성역량 강화’를 제시하였다.

<표 4> MDGs와 SDGs 비교

구분	MDGs (2001-2015)	SDGs (2016-2030)
구성	8개 목표+21개 세부 목표	17개 목표+169개 세부목표
대상	개도국	개도국 중심이나, 선진국도 대상
분야	빈곤, 의료, 교육 등 사회 분야	경제성장, 기후변화 등 경제사회 환경 통합 고려
참여	정부 중심	정부,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 모든 이해 관계자
의제	2.초등교육의 완전보급	4.포괄적이고 공평한 질의 교육보장 및 평생교육의 기회 촉진
	3.성평등 촉진과 여권 신장	5.성 평등 달성 및 여성 역량 강화

출처: 외교부 (2015)

5.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

세계교육포럼은 UNESCO가 주도해 온 기초교육 보급운동인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15년을 이끌어 나갈 세계교육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교육 분야 최대 국제행사로 대한민국 송도에서 2015년 5월 열렸으며 164개국이 참가하였다. 2015 세계교육포럼은 ‘교육을 통한 삶의 변화’를 슬로건으로 2000년 이후 ‘모두를 위한 교육’과 새천년 개발목표(MDGs)의 성과를 종합평가하고, 2030년까지의 향후 15년간 국제사회가 지향해야 할 세계 교육에 대한 공동 비전과 발전 목표를 구안,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섯 가지 핵심 의제로 교육받을 권리, 형평성, 포용, 양질의 교육, 평생학습을 제시하였다.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는 전 세계 국가들이 2030년까지 성차별이나 빈부 격차,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해 모두에게 최소 9년의 질 좋은 의무교육을 제공하고, 평생학습 진흥을 통해 고등교육과 직업교육을 강화하자고 ‘교육 2030 :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을 향하여’를 주제로 하는 인천 선언(Incheon Declaration)을 채택했다. 양성평등의 주요 내용으로는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을 배려하는 정책, 계획 및 학습 환경과 교사 훈련 마련, 교육과정 내 성별 이슈의 주류화, 교내 성차별 기반 폭력의 제거를 지지할 것을 선언하였다.

평생학습 기회는 모든 상황과 모든 수준에서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는 양질의 TVET 및 고등교육과 연구에 대한 접근성의 균등한 확대를 포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습경로를 유연하게 제공하고 비형식 및 무형식 교육을 통하여 획득한 지식, 기술, 역량에 대한 인정, 검증, 인증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여아와 여성이 적절하고 공인된 실용적 문장 해독력 및 수리력 수준을 갖추도록 보장하며 학습 및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지식 전파, 정보 접근성 향상, 양질의 효과적인 학습,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ICT를 활용해야 한다. 이 밖에도 국내 실항민·난민 등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아이들, 청년들, 성인들의 교육수요를 충족하도록 보다 포용적이고 대응적이며 탄력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약속했다.

6. OECD의 SDG 이행 전략

2016년 1월 19일 OECD 개발이사회의에서는 2015년 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SDGs에 대한 각국의 이행 사례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OECD 차원의 SDGs 이행체계 구축방안 및 회원국, 파트너 국가, 기타 개도국과 국제기구의

SDGs 이행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사무국은 OECD 차원에서 SDGs 관련하여 조치가 필요한 4대 분야로 ① OECD 사업프로그램 및 기존 전략에 대한 SDGs 렌즈 적용, ② SDGs 진전 평가를 위한 증거기반(evidence base) 개선, ③ 개별국가의 SDGs 이행을 위한 통합 기획 및 정책 수립 지원과 함께 각국 정부 간 SDGs 추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장(場) 마련, ④ OECD 대외관계를 위한 SDGs의 함의 고찰을 제시하였다. OECD 개발이사회 참가대표들은 OECD가 회원국은 물론 파트너 국가, 기타 개도국이나 국제기구의 SDGs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과 경험,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OECD가 SDGs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였다. SDGs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OECD 정책수단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통합성(PCSD), 통계, 개발재원 동원, 조세, 파트너십 등을 주로 거론하였다.

개발이사회에 참석한 OECD 비회원국들은 SDGs 이행이라는 큰 도전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OECD가 지식 및 모범사례 공유, 통계 역량 강화 지원 등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Ⅲ. 한국 ODA 사업 분석

1. 2016년 ODA 예산 규모

한국의 2014년 ODA 지원 규모(순지출 기준) 전년 대비 5.8% 증가한 총 18.5억 달러이며 총 국민소득 대비 ODA비율(ODA/GNI)은 2014년 0.13%로 전체 29개 DAC 회원 중 16위를 보였다(국무조정실, 2016).

한국의 2016년 ODA 총 규모가 지난 해보다 612억 원 늘어난 2조 4,394억 원이며, 이 중 1조 9,479억 원(유상 8,937억 원, 무상 1조 542억 원)은 양자협력에, 4,915억 원은 다자협력 사업에 책정되었다.

무상협력 분야의 경우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개발협력 4대 구상에 부합하는 사업 이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원조분절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박스 1〉 개발협력 4대 구상

-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15.9월, 유엔개발정상회의)
 - 개도국 소녀들의 교육, 보건, 미래역량강화 지원('16~'20년, 총 2억불 규모)
-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15.9월,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서울회의)
 - 개도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지원('16~'20년, 총 1억불 규모)
-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혁신('15.12월, 유네스코 특별연설)
 - 개도국의 혁신적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창업기반 조성 지원('16~'20년, 총 2억불 규모)
- 신농촌개발패러다임('15.9월, 유엔총회)
 - 21세기 개도국의 여건과 현실에 부합하도록 보편화·현대화한 농촌개발전략 수립

출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5)

ODA 사업 예산이 지원되는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에 가장 많은 43.8%, 아프리카에 18.7%, 중남미에 6.7%, 중동·독립연합국가(CIS)에 5.5% 등이 배정됐다. ODA 사업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분야별로 보면 교통 13.3%, 수자원 11.0%, 교육 10.3%, 보건 10.2%, 에너지 9.5%, 공공행정 8.6% 등이다.

2. 2016년 ODA 주요 추진 과제와 전략

2016년은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 및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해이다. 중점 협력 국가 재조정 이후 24개국에 대해 정부는 협력국 의견을 반영하여 2차 초안을 작성하게 되었으며 최종정책 협의를 거쳐 연내 24개국에 대한 중점 지원 국가를 확정하였다(〈표 5〉참조). 중점 협력 대상 국가 23 개국에서 14개 국가가 교육을 포함한 TVET의 분야이다.

〈표 5〉 국가별 4대 중점협력분야 도출(안)

국가	중점협력분야	국가	중점협력분야
가나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에너지, 지역개발	아제르바이잔	지역개발, 통신, 물 관리 및 보건위생, 공공행정
네팔	교육, 물 관리 및 보건위생, 지역개발	에티오피아	교통, 물 관리 및 보건위생, 지역개발, 에너지
라오스	지역개발, 물 관리 및 보건위생, 에너지, 교육	우간다	교통, 교육, 물 관리 및 보건위생, 공공행정
르완다	교육, 통신, 지역개발	우즈베키스탄	교육, 물 관리 및 보건위생, 공공행정
모잠비크	교통, 에너지, 물 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인도네시아	교통, 공공행정, 물 관리 및 보건위생, 환경보호
몽골	교통, 교육, 물 관리 및 보건위생, 공공행정	캄보디아	교육, 교통, 물 관리 및 보건위생, 지역개발
미얀마	교통, 에너지, 공동행정, 지역개발	콜롬비아	지역개발, 교통, 통신, 공공행정
방글라데시	교통, 교육, 물 관리 및 보건위생, 통신	탄자니아	물 관리 및 보건위생, 교통, 교육, 에너지
베트남	교통, 교육, 물 관리 및 보건위생, 공공행정	파라과이	교통, 물 관리 및 보건위생, 지역개발, 통신
불가리아	물 관리 및 보건위생, 교통, 에너지, 지역개발	파키스탄	지역개발, 에너지, 교통, 물 관리 및 보건위생
세네갈	교육, 교통, 물 관리 및 보건위생, 지역개발	페루	교통, 물 관리 및 보건위생, 공공행정
스리랑카	교육, 교통, 물 관리 및 보건위생, 지역개발	필리핀	교통, 지역개발, 물 관리 및 보건위생, 재해예방

출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5)

제 I 장

개발협력 이슈

제 II 장

제 III 장

제 IV 장

IV. TVET의 여성 정책과 ODA

1. 국제기구 등에서의 여성정책

성평등 달성, 여성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를 통한 발전, 여성 인권의 보호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개발 협력 선진화 노력의 일환으로 꾸준히 노력해왔다.

UN은 19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정하고 제 1차 세계여성대회를 개최한 이래, 여성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1979년, UN 총회는 여성의 권리에 대한 국제적 협약인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UN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을 채택하였다.

1995년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 4차 유엔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베이징 행동 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은 12개 핵심 부문(빈곤, 교육, 보건, 폭력, 분쟁, 경제, 권력 및 의사결정, 성평등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인권, 언론, 환경, 여아)에서 전략적 목표와 행동강령을 제시하였다. 특히 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부의 공약과 모든 부문에서의 정부 정책 및 프로그램 간의 실질적인 연계를 통한 정부의 책무성 강화를 강조하였다. 동 강령은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성 주류화’ 전략을 제안하였다.

1999년 OECD는 ‘개발에 있어서의 양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을 발표하였다.

2000년 UN총회에서 채택한 UN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빈곤, 기아, 질병을 퇴치하고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성평등 도모와 여성의 역량을 강화할 것을 천명하였다. 성평등은 그 자체로서 개발목표이며, 유엔개발계획(UNDP)은 성평등 달성이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서 매우 핵심적인 의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UN 안전보장이사회는 2000년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UN 안보리 결의문 1325’를 채택하여, 전쟁이 여성에게 특히 많은 고통과 피해를 준다는 것을 강조하고 각국이 분쟁 방지 및 해결과 연계된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확대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UN은 여성 폭력추방 캠페인(UNiTE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을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활발히 펼치고 있다.

2008년에는 개발협력과 성평등을 연계하는 정책 원칙(DAC Guiding Principles for Aid Effectiveness, Gender Equality and Women Empowerment)에서는 공여국과 수원국 양측이 개발정책 및 개발협력 프로그램에 성평등 과제를 반영토록 하고 있다(강명옥, 2011).

원조 효과성에 대한 파리선언의 이행을 추진하고 있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도 개발협력에서의 성평등 목표 달성에 대한 노력을 개진하고 있다. 2011년도 파리선언 모니터링 조사는 특별히 성평등 목표 달성에 대한 성과 측정 지표를 포함하여 공여국과 수원국이 선택적으로 성과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주인의식, 성과 관리, 상호 책무성 원칙에 대하여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평가를 시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성평등 달성을 위한 정책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 배분, 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성별 분리통계 구축, 수원국과 공여국 간 정책대화 및 공동 평가에서의 젠더관점 반영 등이 원조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필요사항으로 강조되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여성 평등과 개발 협력을 위해서 KOICA를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무상원조의 성평등 목표와 성 주류화 이행을 위해 KOICA는 직제 및 인력, 규정과 이행지침 등을 구축하여 왔다(〈표 6〉 참조). 여성 수혜 대상 ODA 사업을 확대하여 국별 연수과정의 연수생 중 여성 비율을 30%로 확대하였다. 이 밖에 2009년 12월 직제를 개편하여 성인지 담당관제도를 도입하여서 지역정책부장을 총괄담당관으로 하여 정책기획, 예산, 집행, 평가, 통계·연구조사 등 5개 분야에서 담당관 7명을 임명하였으며 정책연구실의 젠더 연구원이 지원하는 체제를 만들었다.

이러한 범분야적 이슈로서의 여성 분야 확대에 대한 정책 반영으로 KOICA는 2011년 시행한 조직개편에서 정책기획부 산하에 별도의 사회개발팀을 만들었으며 제도적으로 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6〉 KOICA의 성평등 노력 실적

연도	추진 실적
2009.12	• “KOICA 사업의 성 주류화 방안” 연구
2010.3	• 젠더 전문관 채용
2010.3	• 〈KOICA 사업의 성 주류화 방안〉 연구 발간
2010.5	• “성인지담당관” 직제 신설
2010.12	• “성평등 증진 및 여성역량강화에 관한 규정” 제정
2011.11	• “성 주류화 가이드라인” 발간
2011.12	• KOICA 성평등 중기 전략(2011-2015) 수립
2012.12	• 성평등 시범사업 16건 선정
2011.	• 성평등 시범사업 확대 및 내실화 추진(총 25건)
2013-현재	• 2013년도-현재: 젠더 성과지표 개발(부서별 성평등 이행과제 부여 및 전사적 성과 관리)
2014-현재	• 2014년도 성평등 시범사업 지속 추진 및 내실화 강화 (총 31건)

출처: KOICA 홈페이지 (2016)

2. TVET 분야 ODA

KOICA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역량 강화 사업은 다양하게 이루지고 있다. 2008년부터 2019년까지 23개 국가를 대상으로 사업 예산은 15,744만 불 규모이다. 아래 <표 7>은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TVET 역량 강화 사업 추진 실적을 나타낸 것이다.

<표 7> 기술 인력 양성 TVET 역량 강화 사업 추진 실적

순서	수원 국	사업내역	기간	사업규모(만 불)
1	네팔	네팔TIT(직훈교사양성기관)역량강화 사업	'15~'19	500
2	동티모르	동티모르 베코라 기술고등학교 지원 사업	'13~'15	800
3	르완다	르완다 키추키로 종합기술훈련원 2차 지원 사업	'13~'15	500
4	르완다	르완다 직업훈련 역량강화 사업	'14~'17	500
5	리비아	리비아 IT직업훈련원 지원사업	'14~'15	100
6	모잠비크	모잠비크 마툴라 산업학교 역량강화 사업	'13~'17	650
7	몽골	몽골 한몽 기술대학교 역량강화 사업	'10~'16	576
8	미얀마	미얀마 기술교사 양성센터 설립사업	'15~'18	1,150
9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화학 산업 기술훈련원 역량강화 사업	'13~'16	500
10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라즈샤히 직업훈련원 역량강화 사업	'15~'19	850
11	베트남	베트남 산업안전보건 훈련센터 개발 지원 사업	'13~'15	340
12	베트남	베트남 중부고원 소수민족 청소년 직업대학 향상 사업	'13~'15	500
13	베트남	베트남한-베산업기술대학 3차 지원 사업	'14~'16	600
14	세네갈	세네갈 고등직업훈련원(ISEP)설립 사업	'15~'18	900
15	스리랑카	스리랑카기능대학(CoT) 및 훈련원(TC)자동차공과개선사업	'13~'15	300
16	아이티	아이티 까라폴 의류기술 훈련원 건립사업	'13~'16	350
17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 교사역량강화 및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14~'16	600
18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르완 직업훈련원 지원 사업	'08~'16	
19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참전용사후손 직업역량 배양 사업	'12~'15	900
20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티그라이주 직업훈련학교 건립 사업	'13~'18	550
21	우간다	우간다 직업훈련원 건립 사업	'11~'15	450
22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지역 직업훈련 교육 역량강화 사업	'13~'16	550
23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직업훈련 역량강화 컨설팅 및 시범 사업	'14~'17	800
24	이라크	이라크 남부 4개주 직업훈련원 지원 사업	'11~'16	800
25	이집트	이집트 통합기술교육 클러스터 종합 계획 수립 사업	'14~'15	100
26	카메룬	카메룬 직업훈련교사 양성센터 건립 사업	'13~'15	640
27	캄보디아	캄보디아 기술교육 고등학교 개발 사업	'13~'15	200
28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가스 직업훈련원 건립 사업	'14~'16	500
29	파라과이	파라과이 고등직업훈련원 건립 사업	'10~'15	538
총 액				15,744

출처: KOICA 홈페이지 (2016)

직업훈련분야의 수원국은 라오스·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 요르단·팔레스타인 등 중동 국가, 이집트·콩고 등 아프리카 국가, 과테말라·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국가 등 유럽과 북미를 제외한 지역의 국가이다. 최근 5년간 직업훈련분야에서 한국의 주요 ODA 사업 실적은 <표 8>과 같다.

〈표 8〉 TVET 분야 ODA 추진 실적

지역	국명	사업명	사업기간
아시아	라오스	한·라오스직업훈련원 역량 강화 (비엔티안)	'07-'08
아시아	미얀마	따가야지역 직업훈련원 건립	'07-'09
아시아	방글라데시	다카시 미르푸르 직업훈련원 개.보수 및 역량 강화	'07-'09
아시아	베트남	한·베 산업기술학교 증축 및 역량 강화	'07-'08
아시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기술문화협력센터 건립	'06-'08
아시아	캄보디아	국가기술자격제도 구축 지원 (프놈펜)	'07-'09
아시아	스리랑카	자프나기능대학 기능 개선사업	'04-'07
아시아	중국	취업훈련기술지도센터 설립 지원	'97-'01
아시아	아프카니스탄	아프카니스탄 직업훈련 지원	'02-'09
아시아	아프카니스탄	바그람 PRT 직업훈련 건립	'09-'10
아프리카	탄자니아	다레살람공대 ICT센터 시설 개.보수 및 역량 강화	'06-'08
아프리카	이집트	자동차 직업훈련센터 역량 강화	'06-'08
아프리카	이집트	중등기술학교 시설 개선 및 역량 강화	'07-'08
아프리카	콩고	중등학교 교육정보화 등	'07-'09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립 직업기능검정원 지원	'99-'01
중남미	과테말라	청소년직업훈련원 자동차정비훈련소 건립	'07-'09
중남미	니카라과	직업훈련원 건립 EDCF 용역	'09-'11
중동	요르단	자르카 직업훈련원 증축 및 역량 강화	'07-'09
중동	팔레스타인	제닌시 기술고등학교 건립	'07-'09
중동	레바논	5개 학교 건립 (브리텔 및 탭닌시)	'06-'08
중동	리비아	트리폴리시 건축분야 직업훈련원 지원	'07-'08
중동	이라크	한·이라크 직업훈련원 건립	'04-'07
중동	이라크	안바르 직훈역량 강화	'08-'09
CIS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직업훈련원 건립	'07-'11
CIS	카자흐스탄	국가기술자격검정시스템 구축 지원	'06-'08

출처: KOICA 홈페이지 (2016)

제 I 장

개발
협력
이슈

제 II 장

제 III 장

제 IV 장

3. 여성 TVET 분야 ODA

가. 프로젝트 사업

여성 분야가 범분야적 이슈로서 국제개발 협력 전 사업에 걸쳐 성주류화 및 성평등 지원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에 비해 여성개발이 독자적인 프로젝트로 나타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개발 협력 사업에서 프로젝트 사업의 비중은 타 형태의 사업에 비해 그 비중이 가장 크며, 2009년도 실적으로 50.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 예산상으로는 55.9%를 차지하고 있어 더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0까지 추진된 프로젝트 199건 중에서 신규 99건을 제외한 지속사업 100건을 살펴보면 ‘환경여성’ 분야로 분류되는 프로젝트는 총 6건이고, 6건 모두 사실상 환경 프로젝트이며 여성프로젝트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도미니카 미성년 임신방지 및 보건관리강화’사업은 환경여성 분야가 아닌 보건의료 프로젝트로 분류되어 있다(강명옥, 2012).

나. 초청연수사업

1996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국제협력단 여성정책 관련 연수 프로그램 총 60개 추진 연수 사업 중 한국양성평등진흥원 20개, 이화여자대학교 8개, 숙명여자대학교 8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5개, 한국국제협력단 4개, 기타 15개이며, 동 기간 동안 총 참여 인원은 1,030명으로 나타났다(KOICA, 2016).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역별 여성 연수생 참여수와 비율은 <표 9>와 같다. 2013년부터 기존 지역 원조 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국별 연수 프로그램이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으로 통합되었으며, 2013년도 글로벌 연수 참여자는 전체 4,546명이고, 이중 여성 참여자는 36%인 1,637명으로 나타났다.

〈표 9〉 지역별 여성연수생 참여비율 (2009-2012)

지역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아프리카	22%(95/433명)	27%(171/632명)	24%(151/630명)	35%(283/821명)
중동CIS	19%(66/347명)	28%(201/716명)	31.2%(223/714명)	33%(81/243명)
중남미	28.5%(57/200명)	33.5%(76/227명)	34.8%(93/267명)	34%(110/319명)
아시아태평양	31.5%(152/483명)	32.7%(185/565명)	35%(276/786명)	28%(297/1,056명)

출처: KOICA (2016). 내부 초청연수생 실적 통계.

국제기구 협력사업의 성평등 목표 사업 및 여성 대상 사업의 경우 UNDP는 아이티에 지진피해 지역 취약여성계층 역량강화 및 중소기업 창업 지원사업(2011-2013), 르완다에 농촌여성 및 청년층 기회제공을 위한 금융 및 역량강화사업(2013-2015)을 추진했다. UNICEF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르완다에 핸드폰(Rapid SMS)을 이용한 모자보건 개선사업, 네팔에 소외계층 산모 및 신생아 관리 개선사업, 캄보디아 취약빈곤지역 신생아 사망률 감소 프로그램, 가나에 북부 및 북동부 지역 보건 및 교육서비스 접근성 제고사업을 추진하였다(KOICA, 2016).

V. TVET와 BLG 구상

1. BLG 개요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이 교육 및 보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개발도상국 소녀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9월 26일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 구상을 발표하였다. 이번 구상을 통해 우리 정부는 15개 중점 사업국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총 2억 불의 무상원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은 가장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는 개도국 소녀들을 위해 보건·교육 무상원조 사업으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을 내년에 공식 출범시키고, 향후 5년간 2억 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녀를 포함한 미래세대에게 보건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유엔 개발정상회의 기조연설 중)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 구상의 대상 국가는 15개국 중심으로 지원 예정이다. 아시아(6개국)는 네팔, 라오스,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필리핀, 아프리카(6개국)에는 에티오피아, 세네갈, 우간다, 코트디부아르, 모로코, 탄자니아, 중동(1개국)에는 요르단을 비롯한 기타 시리아 난민 보호국이, 마지막으로 중남미(2개국)에는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이 있다. 아울러 이외에도 취약국 중심으로 말리, 시리아 등이 협력 대상국으로 추가 고려가 가능하다.

KOICA는 우리 정부의 이와 같은 구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소녀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소녀 친화적인 보건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소녀들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보건 분야의 무상원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건강하게 교육받은 소녀 인재 양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양성평등 실현,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 구상은 소녀들의 교육, 보건, 직업훈련 역량강화라는 3대 중점 분야 중 소녀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ICT, 회계 등 공통역량 교육 및 기술훈련을 통한 직업역량 강화, 지역사회 여성 인재 양성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2. 중요성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남녀 차별 없이 적어도 중학교까지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소녀들은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교육과 TVET 권리에 소외되어 꿈과 잠재력을 키워나갈 기회들을 잃어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소녀들이 6,200만 명에 달하며,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의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25명 중 14명의 여학생만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중에서 중학교를 졸업하는 수는 단지 7명에 불과하다. 소녀들에게 평등한 TVET 제공, 사회 참여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게 되어 자녀를 보다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 또한 TVET를 받은 여성은 가정 및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 경제적 권한이 강화되어 다양한 사회제도 및 조직에서의 여성권익의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 BLG)’ 구상은 개발도상국의 소녀들이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강화는 자신의 가족과 지역사회, 국가를 위해 의미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VI. TVET 협력의 비전 및 추진 전략

1. 비전

가. 소녀들을 위한 직업훈련과 인적자원 개발 기본 방향

비 전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개도국 소녀들의 삶의 증진	
3대 전략 목표	추진 과제
양성평등과 기초학습능력 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양성 평등적 관점 강화 · 교원의 양성 평등의식 제고 · 성평등한 TVET 기회 및 기관 운영 기반 구축 · 직업생활을 유지하고 적응하기 위한 기초학습능력(CT, 회계, 자기관리 능력, 직업윤리 등) 배양
TVET을 통한 소녀들의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녀를 대상으로 한 특화된 TVET 프로그램 강화 · 직업훈련의 질적 향상 · 직업훈련 정책 및 제도 개선 ·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소녀 인력 양성
여성의 사회경제적 자립 능력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ET → 취업지원 프로그램 간 연계 강화 · 여성 고용 활성화를 위한 취업지원 강화 ·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 체제 구축 · 사업 성격별 적합 자원 확보

2. 추진 전략 목표와 과제

가. 목표

많은 연구에서 TVET의 문제점으로 TVET 참여의 제한적, TVET의 낮은 질, 낮은 직업기술교육 훈련생의 수준, 낮은 질적 수준의 교사, TVET 과정 성과 분석의 한계, 컨트롤 타워의 부재, TVET 기관의 자율성 부족 등이다.⁴⁾

본 구상은 소녀들에게 양질의 직업훈련 기회 제공을 통해 현지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며, 개인의 기술능력을 제고하여 양성평등, 빈곤감소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국제개발 협력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것이다.

4) 이 내용은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 TVET 분야 ODA 사업 추진 상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요약한 것임. 추후 사업 추진 시 이런 문제점 분석은 개별 국가와 권역별 국가 현황 분석시 이루어져야 함.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소녀들을 위한 TVET 시스템이 현 노동 시장과 개별 국가의 수요에 상응하도록 전체적인 TVET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들 국가들에 대한 지원 방안에만 관한 전략 목표는 단기적과 장기적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단기적 측면의 목표로는 소녀층의 수요에만 국한하여, 개별 국가의 소녀 계층의 수요에 상응하는 TVET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수요 계층에 대한 TVET 시스템의 접근성 향상이다. 장기적 측면에서의 목표는 TVET 시스템 개혁의 주체가 되는 국가 정부의 시스템 운영 역량 증진이다. 이러한 두 가지의 세부 목표는 관련 기관 설립, TVET 프로그램의 발전 지원을 위한 직접 원조 이니셔티브 및 TVET 정책 및 프로그램 형성 등을 통하여 달성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BLG를 위한 TVET의 3대 전략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해당 국가의 경제적인 측면, 특히 노동시장 및 관련 정책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타당성 조사 및 분석을 강화하여야 한다. 타당성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우리의 지원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및 사회발전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가능한 환경을 개발도상국이 구축하고 있는지를 집중 분석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훈련원 건립, 훈련교사 등의 활용 여부 등이다. 물론 결과중심 사업 기획 및 관리를 위해서 사업과정에 성과관리 체계 및 도구 활용을 의무화하고 성과 및 결과중심 평가 실시하고 사업기획 단계부터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수립하여야 한다(김철희, 2013).

둘째, 직업기초능력(ICT,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직업의식 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기초능력 수준 및 소득증대, 빈곤감소, 남녀평등 참여를 위한 TVET가 되어야 한다.

넷째, 개발도상국은 저숙련 기능 인력이 많이 필요한 개발 단계로 이에 따라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수원국의 현지 산업계 수요 파악과 현지 노동시장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즉, 직업훈련 정보를 포함한 노동시장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훈련원 수료생들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TVET 총괄 컨트롤 타워 설립 및 운영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컨트롤 타워는 훈련기관 운영 지원을 위한 자문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직업기술교육훈련원 운영에 대한 접근 및 자문 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인 직업훈련기관 운영을 위한 비전, 전략, 구조 등 체계화와 인프라 구축, 핵심과정별 주요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

여섯째, TVET 시설 현대화하여야 한다. 앞선 <표 7>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 인력 양성

지원국 23개국에서 BLG 선정국가는 아시아 3개국, 아프리카 3개국에 불과한 수준이다. 따라서 기존 노후화된 TVET 시설 교체와 더불어 새로운 시설과 장비 지원이 요구된다.

일곱째, 직업기술교육 훈련과정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TVET 담당 교사들에 대한 연수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초청연수시 수원국 훈련원 경영진 혹은 관리자, 교사 등의 수준과 수요, 요구에 부합하는 연수프로그램으로 기획, 운영해야 한다. 초청연수 인원 선정, 대상자 선발, 귀국 후 연수결과 활용 등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상, 설계하여 수원국에 적용하기 용이하게 운영해야 한다.

여덟째, 중등교육 후 심화수준에서 TVET를 제공하여야 하고, 산업체 현장기반 TVET를 도입하여야 한다. 직업훈련 설계시 실제 고용자가 참여하여 현장수요 중심의 직업훈련과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산업 ODA 사업과 TVET 분야 ODA 사업을 연계하여야 한다. ‘BLG’ 구상의 기본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 ODA 내의 사업간 연계를 넘어서 TVET 등 관련 분야와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글로벌 개발목표에서 지향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TVET가 지역산업의 수요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취약 계층인 소녀들의 숙련형성과 관련된 인적자원 분야 ODA 중에서는 TVET 분야에서는 기능인력 양성, 고용지원 및 관리, 숙련 기술 장려 및 형성,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그리고 산업화를 위한 TVET 인력양성 체계, 산학연관 협력 특성화교육, 지역우수대학 육성 등이 산업 ODA와 연계가 되어야 할 분야들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직업훈련과 관련된 사업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사업은 직업훈련원 지원 부문이다. 예를 들면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 라오스(비안티엔), 필리핀(다바오)의 직접 훈련원 지원 사업, 라오스의 공업계 고등학교 설립 지원 타당성 조사, 베트남(하노이)의 한·베 산업기술 학교 역량 강화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사업이 대체로 이수자들의 취업연계가 미흡하고 훈련생들의 질 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 이는 바로 TVET이 지역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산업 ODA가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개발목표에 부응하고 인적자원 분야 ODA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양 사업이 연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TVET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개도국에 중점을 두었던 MDGs가 모든 국가에게 적용되는 SDGs로 전환됨에 따라 전통적인 개발 협력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보편적 목표로서의 역할과 對개도국 지원 지침으로서의 역할 간에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 특히 재정적인 측면에서 고민해나갈 필요가 있다.

나. 추진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도상국 권역을 나누어 권역별로 각 섹터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TVET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TVET 시스템의 역량 강화, 그리고 수원국의 경제 발전 수준과 TVET 수준에 맞추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성들에게 TVET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TVET 교육 대상 인구 계층에 맞는 다양한 TVET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TVET 습득과 기술인력 풀에서 큰 남녀 성별격차를 보이므로, 협력대상국의 훈련 및 노동시장 현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준비도가 있는 여학생들의 TVET 연계를 통해 여성 기술인력 및 기능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이 마련되도록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소년 개발 사업 내용 중에 TVET 자체만으로는 프로젝트화가 어려우므로 교육, 농촌개발, 보건, 양성평등 또는 성주류화 등 타 분야 사업을 연계 또는 협력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다. 추진 과제

3대 전략 목표에 의한 추진 과제를 개발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국내 정부 부처 및 전문기관 간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TVET 분야 ODA는 KOICA가 주도적으로 수행하지만 관련 정부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ODA 사업 콘텐츠를 다양화하여야 한다. TVET 분야의 경우 협력대상국 산업인력 양성에 필요한 직업훈련 정책 및 제도 도입 방안 마련 시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 외에 참여 가능한 국책 연구기관, 관련 공공기관, 대학, 민간건설업 업체, 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제고하여야 한다. 더불어 TVET ODA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하여 TVET ODA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 과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원조분절화 확산 방지 및 지원 프로그램 효과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과 기초학습능력 배양〉

-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양성 평등적 관점 강화
- 교원의 양성 평등 의식 제고
- 성평등한 직업훈련 기회 및 기관 운영 기반 구축
- 직업생활을 유지하고 적응하기 위한 기초학습능력(ICT, 회계, 자기관리 능력, 직업윤리 등) 배양

〈TVET를 통한 소녀들의 역량 강화〉

- 소녀를 대상으로 한 특화된 TVET 프로그램 강화

- TVET의 질적 향상
- TVET 정책 및 제도 개선
-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소녀 인력 양성

〈여성의 사회경제적 자립 능력 증진〉

- TVET → 취업지원 프로그램 간 연계 강화
- 여성 고용 활성화를 위한 취업지원 강화
-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 체제 구축
- 사업 성격별 적합 자원 확보

제 I 장

개발협력
이슈

제 II 장

제 III 장

제 IV 장

라. 추진 과제에 대한 Action Plan

개발도상국의 여건에 맞는 이행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Action Plan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Action Plan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개발목표 달성의 제도적 토대가 되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거버넌스와 법치, 인권과 양성평등의 원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Action Plan은 다음과 같다.

- 개별국가의 경제·사회 수준과 연계한 TVET 목표 및 전략 설계
- 수요와 공급에 부합하는 직업 기술을 교육하는 TVET 시스템 개발
- 노동시장 정보 시스템(LIS) 개발
- TVET 교사 훈련
- 새로운 형식의 TVET 커리큘럼 개발 및 시스템 역량 강화
- 수요자 중심의 분권화된 TVET 시스템 개발
- TVET에 대한 지역 사회의 접근성 향상
- TVET 환경 개선
- TVET 기관 경영에 대한 새로운 모델 개발

Ⅶ. 마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9월 26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개발정상회의 본회의에서 “한국은 가장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는 개도국 소녀들을 위해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 구상을 내년에 공식 출범시키겠다”며 “소녀를 포함한 미래 세대에게 보건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DGs 내에서 교육목표는 독립 목표로 전체 17개의 목표 중 하나이다. 목표 4는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을 제시하고 있다. 성별 격차 해소는

삶의 질, 복지는 물론 경제 성과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성 균형은 경제성장과 안정의 근본요소이며 성 격차 해소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9%, 유로존 GDP의 13%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에서 경제발전에 성공한 거의 유일한 모범적인 나라이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Peter F. Drucker), 제프리 삭스(Jeffrey David Sachs) 교수를 비롯한 세계적인 경제 석학들은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

최근 해외원조의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짧은 역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요소를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사회발전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개발도상국 경제 발전에 기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우수성과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개발과 교육 분야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세계적 흐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기업, 국민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공동의 번영과 발전이라는 비전 하에 저개발 도상국 사람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 정부 간 개발협력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여성분야 ODA 사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개발도상국 여성을 직접적인 수혜자로 고려한 ODA 사업은 KOICA의 국내초청 연수 중심의 사업으로 전반적으로 한국의 개도국 여성을 위한 ODA 사업이 매우 부족한 편이다. KOICA나 정부기관인 여성부에서 독자적으로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뿐, 한국의 국책연구 기관, 대학이나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최대한 동원하여 ODA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의 다양화 노력이 다소 부족하였다.

SDGs는 인류의 발전을 위한 목표이다. 지속가능 개발을 위해서는 계획이나 실행만큼 그를 뒷받침할 물질적 지원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SDGs의 실현을 주도하는 입장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5년 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에 공표된 정부 개발협력 4대 이니셔티브 중 핵심구상인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LG)’에 대해 향후 전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KOICA를 중심으로 많은 전문가, 정부 관계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측면의 개발도상국 소년들을 위한 ODA 사업을 강화할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엔 사무총장 배출국이자 SDGs 이행 지원, 모니터링을 총괄하는 금년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의장국으로서 SDGs 이행에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SDGs 전략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함께 BLG의 이행을 위한 방향 설정과 함께 조직 등 운영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장명옥. 2011. 여성 국제개발 협력 프로젝트 모델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5.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
강선주. 2014. “Post-2015 개발어젠다: UN 정부 간 협상 전망”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
안보연구소
김지현 외. 2015.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김진희 외. 2014. “Post-2015 글로벌 교육의제 동향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수원 외. 2012. “한국형 ODA 모델 수립을 위한 인적자원(직업훈련) 분야 ODA 프로그
램 선정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철희 외. 2013. “개도국 직업훈련 지원 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 서울: 한
국직업능력개발원
숙명여자대학교. 2012. “APEC 여성 IT교육훈련 방문연수 사업 강화 방안 중심으로”. 서
울: 숙명여자대학교
외교부. 2015. 유엔개발정상회의(2015.9.25.-27). 서울: 외교부
이남철. 2015a. “공적원조개발(ODA)을 통한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인적자원개발 지원”.
『직업과 인력개발』 제18권 4호.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p.80-95
_____. 2015b. “한국형 인적자원개발 경험 공유”. 『미래정책』 4호. 서울: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pp.16-19
이태주. 2006. “개발도상국 지식기반 확산을 위한 한국 ODA와 대학의 파트너십”. 강원
도: 강원대 아시아태평양리더십센터. p.122
최동주 외. 2009. “개발도상국 여성역량개발 지원 사업 다양화 방안 연구”. 서울: 여성부
최정운 외. 2013. “Post-EFA 세계교육회의 의제 개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UNESCO. 2014. “DRAFT OUTLINE Framework for Action on Education
Post-2015”. Paris: UNESCO
UNSD. 2015. “Targets in the Proposed SDGs Framework.” New York: UNSD,
available at UNSD.org/uploads/files/resources/doc_1_Learning_to_Live_Together.pdf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www.pmo.or.kr (접속일: 2016.03.)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 www.koica.go.kr (접속일: 2016.03.)
한국국제협력단. 2016. 내부 초청연수생 실적 통계

제 I 장

개
발
협
력
이
슈

제 II 장

제 III 장

제 IV 장